

# 문화재 관리 “과감한 민간 이양, NGO 적극 활용”

### 불교문화재연구소 10월 31일 ‘한국의 사지, 그 유구한 역사와 오늘’ 서

사지에 방치된 문화재들은 어떤 방식으로 보존해야 할까?

10월 31일 불교문화재연구소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한국의 사지, 그 유구한 역사와 오늘’에서는 보존 대책의 새로운 방안이 제기됐다.

#### 영국에선 민간에 과감한 권한 이양

리차드 모리스 英 허더즈필드대 교수는 문화재의 보존은 그 문화재가 가진 공익성을 국민들이 체감할 때 자발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리차드 교수는 영국에서 문화재가 가진 공익성을 강화하자 이익을 보는 시민들이 스스로 보존에 나섰음을 들었다. 영국은 15세기 이전 교회가 1만 1000개에 달하고, 육외의 종교기념물이 2만개에 달하는 곳이다.

리차드 교수는 “문화재를 정부에서 가만히 보존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 위탁을 통해 보존과 활용을 병행해야 보존에도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리차드 교수는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영국 또한 정부 차원의 보존기금이 있지만 부족하기에 각 교회마다 이를 수령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며 “영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잉글리시 헤리티지’ ‘교회 보존협회’ ‘내셔널트러스트’ 등 민간단체에 과감히 권한을 이양했다”고 제시했다.

리차드 교수가 예를 든 ‘잉글리시 헤리티

지’는 영국 정부가 설립한 재단으로 각종 기념물 입장료, 기부, 기념사업 등을 통해 전체 예산인 2억 파운드(약 3300억원) 중 절반을 직접 모금한다. 보존NGO인 ‘내셔널트러스트’ 또한 연 9000만 파운드를 모금해 350개의 문화재 건물 등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특이점은 연간 20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문화재를 찾게 하는 등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는데도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 英은 민간단체 활용해 보존재원 마련

#### 정부 제도, 예산으로는 한계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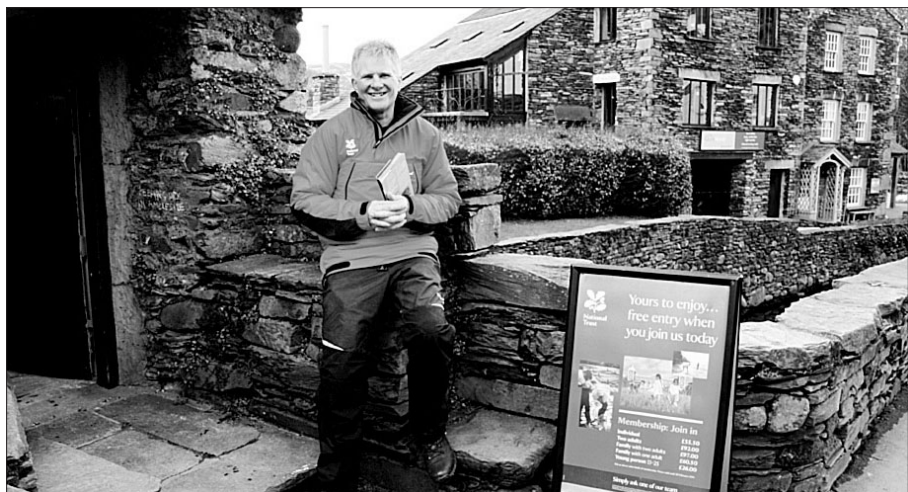
#### 문화재지킴이·관리사찰 지정 등 필요

리차드 교수는 “최고의 보존은 사용을 통한 보존”이라며 “관리주체를 시민들에게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사지와 사지문화재, 공공재 성격 강화해야

장용철 문화재복지연대 공동대표는 “사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며 “스토리텔링 개발, 힐링 테마 여행상품화, 문학예술 소재활용, 역사교육 체험학습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한국에서는 사지와 사지문화재가 종교적 역할이 남아있는 점은



영국 앵블사이드의 상징인 브리지하우스의 내셔널트러스트 활동 모습. 문화재 내에 내셔널트러스트 상점이 있으며 회원들이 지킴이 및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큰 장점”이라며 “발굴 등의 조사 이후 중단 차원에서 주변사찰 중심의 관리사찰 지정 등이 필요하며 1페사지 1지킴이 활동 등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지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도 역사와 전통을 살리는 다양한 현대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고 제시했다.

류 학예연구관은 “폐사지와 여기에 산재한 문화재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여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사지 관리,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

황권순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은 “폐사지 보존관리를 위한 법률·제도적 개선

방안’에서 사지의 문화재를 크게 민간소유의 폐사지에 있는 문화재, 국가소유의 폐사지에 있는 문화재로 구분하여 각각의 보존 방안을 제시했다.

황 담당관은 “폐사지의 가치를 발굴하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보존수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금법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보다 실질적인 조사와 발굴,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요 할 담당관은 “폐사지는 사적으로 지정해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에 폐사지 보존법을 제정해 등록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화엄·법화 아우른 회통적 발전 필요”

### 관음종 창종 50주년 학술세미나서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10월 27일 낙산 묘각사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불교문화의 전승과 실재를 주제’로 1부 ‘화엄과 법화의 회통’ 2부 ‘불교와 현저문화의 회통’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기초발제로 나선 이평래 총남대 명예교수는 ‘(법화경)과 (화엄경)의 원용일체 사상’ 기초발제에서 “두 경전은 붓다의 모든 가르침을 융합하는 일불승 사상이란 점, 또 중생구제에 적극적이며 사회연동의 이타적인 불교운동이란 점, 바로 지금 현재’의 부처를 열망하는 대중들의 노력에 의한 점 등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재권 능인불교대학 교수는 ‘법화·화엄사상에 나타난 불신관의 특색’에서 “법화경은 구원 서가불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법신사상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화엄경은 영원무한을 비로자나 법신불사상이 강조된다”며 차이점을 밝혔다.

차차서 동방대학교 교수는 법화수행에서 널리 행해지는 사경 변질과 함께 참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많은 법화사상가들은 사경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경을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사경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수행이란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화엄대장경 경운선사와 법화행자 태허대법사’에서 “사승관계로 보면 태허 스님은 경운 스님의 화엄교화를 전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태허 스님은 철저한 법화수행자였다”며 “태허 스님의 문헌들은 대승불교의 양대산맥인 두 사상을 회통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용성 스님 한글 대장경’ 등록문화재로

### 문화재청 10월 30일 문화재 등록 예고

용성 스님이 1922년 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한 해설서인 〈신역대장경〉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백용성 역 한글본 〈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와 한암 스님의 가사(袈裟) 2권을 문화재 등록 예고했다.

‘백용성 역 한글본 〈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는 용성 스님이 한문으로 된 금강경(金剛經) 원문을 한글로 번역해 해설서로, 익산 원광대 중앙도서관에 보관돼 있다. 1922년에 최초로 제작된 초판본으로 용성 스님이 ‘삼정역회’를 조직해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불교 경전의 대중화에



이바지한 자료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와 함께 명창 월정사가 소장하고 있는 ‘한암스님 가사(袈裟)’는 역사성과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는

이번에 등록 예고한 2건은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을 거친다. 노덕현 기자

## 원로와 청년들에게 차를 묻다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21세기 전통차 진흥 위한 토론회

몸과 마음을 함께 맑게 한다는 차. 하지만 현대인들에게는 한국 전통의 차보다 커피가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세대에 전통차의 맛과 멋을 전하는 자리가 열려 눈길을 끈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소장 박동춘)는 성균관대와 공동으로 11월 15일 오후 1시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21세기 전통차 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토론회는 ‘전통차 문화의 의미와 전망’이란 주제로 전통차의 대표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변영섭 前문화재청장을 비롯해 박권희 한국차연합회장,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김중규 삼

성출판박물관장, 채원화 효당분가반야 로차도문화원장 등 차인 250여 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

#### 대학생 토론회, 발표 및 시음 진행

#### 박동선 등 차계 원로 한자리에

연구소장의 진행으로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청년, 차를 묻다’를 통해 현대인의 삶에 전통차가 자리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자리는 젊은세대들이 차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듣고, 현대인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기 위한 다례 교육에 대한 모색이 이뤄진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원로, 차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국차의 흐름과 나아갈 방향을 논의한다. 박동선 한국차인연합회 이사장, 미국 보스턴문수사 회주 도범 스님, 정승연 다례원장 등이 패널로 나선 예정이다.

특히 박동선 한국차인연합회 이사장은 1935년 평남 순천에서 태어나 17세 때 도미(渡美), 조지타운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에서 활발한 정치활동을 진행한 다계원로로 근대 한국차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토론회에 이어서는 ‘모두 차를 논하

다’를 주제로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의 ‘전통 차 문화의 의미와 전망’ △조희선 성균관대 교수의 ‘한국 다도 교육의 실제와 비전’ △정서경 목포대 연구교수의 ‘지역 차 문화의 현상과 비전’ 등의 차 관련 논문도 발표된다.

이어 세미나에 참여한 대중들이 함께 전통차를 마시며

박동춘 소장은 “70년대 차 운동 태동기에 차를 널리 보급하자 차 운동의 선봉에 섰던 원로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다. 이들의 노력은 지금 차를 말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든 토대”라며 “현대차 태동기의 긍정적인 면과 한계를 살펴보고 미래사회의 성장 동력인 젊은이들에게 전통 차의 우수성과 활용법을 알리는 자리”라고 말했다. (02)504-6162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약탈문화재 환수 위한 토론회 열린다

2015년 한일협정 50주년을 앞두고 문화재 환수운동의 방향을 재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 봉안위원회(위원장 주경)는 11월 19일 국회의원회관 2층 201호에서 ‘약탈문화재 환수와 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 환수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영임 前튀니지 대사의 ‘부석사금동관세음상 탐구와 문화재환수운동의 의미’ 기초발제를 시작으로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의 ‘왜구의

침탈과 부석사 불상과의 상관관계’ △진성영 법학박사의 ‘부석사 불상 환수를 위한 법률적, 정책적 검토’ △박정현 부석사 불상봉안위지도위원의 ‘국제사회의 문화재 환수와 국내활동’ 등이 진행된다.

봉안위 측은 “2015년 한일협정 50주년을 앞두고 꼭 청산해야 할 역사적 과제 중에 하나가 지난 날 약탈당한 문화재의 정상적인 ‘반환’”이라며 “그동안의 문화재 환수운동의 평가하고 나아가 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의 환수 방안에 대하여 아담법석을 여는 자리”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 활법 자세 교정사

###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뼈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교육 과정	교육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li> <li>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li> <li>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li> <li>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li> </ul>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 대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 순환기성 질한 임상 교육시간 : 5 ~ 10회 환형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87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11월 중

◆ 개강일시 : 2014년 11월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11월 (매주 월) ◀

※ 본원은 초중급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청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